



섹션광장

육상운송

사설

- 사설 = 국토교통부 업무, 교..
- 사설 = 여성운전자가 는다는..
- 사설 = 세종시 생활환경 서..

기획특집

- 국가 교통안전업무 '컨트롤..
- K사 택시미터기 요금조작 관..
- 설 명절 앞두고 '택배인력..

스페셜리포트

- 2013 화물캠페인=설 특별수..
- 2013 버스캠페인=안개·연무..
- 2012 버스캠페인=새벽운전

테마기획

- [2013 신년특집] 고유가시대..
- [2013 신년특집] 미리 가보..
- [2013 신년특집] 미리 가보..



이흥로 교수의
교통안전 百科



이태형 박사의
로지스&로지스



최기주 교수의
교통 View



김기찬 교수의
카&인덱스



김상태 박사의
관광시론

제4598호 2013년2월14.. more



기사내용 보기

2010-12-27 10:25:38

택시운전 자격시험도 온라인시대



내년 1월부터 인터넷으로 원서접수 서비스

택시운전자격시험을 치르기 위해 지역별로 사업조합을 찾아다니며 서류를 접수하고, 합격자 발표를 보러 가는 번거로움이 해소되게 됐다.

택시연합회 지난 23일 택시연합회관 회의실에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운전 자격시험 온라인 검정 시스템 구축사업'(이하 온라인 검정 시스템) 완료보고회를 갖고 내년 1월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검정 시스템의 구축운영으로, 향후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개인은 전국 어디서나 시험 접수처(시도 조합)에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응시원서 접수와 시험결과 확인 등이 가능하게 됐다.

택시운전 자격시험 인터넷 접수 방법은, 먼저 택시운전 자격시험 온라인 검정 시스템 홈페이지(www.taxiexam.or.kr) 접속한 후 응시지역 및 회차를 선택하고 개인 응시정보를 입력한다. 계속해서 '응시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결제하면 응시표 출력받게 된다. 이 응시표를 지참하고 자격시험 당일 시험을 치르면 된다.

이로써 수요자 중심에서 안방민원 처리가 가능해져, 자격시험 응시자(연평균 약 5만여명)들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응시자 개인별 생업에의 지장을 최소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도 지역의 경우에는 그동안 응시자의 거주지와 자격시험 접수처 간의 지리적 위치가 상이해, 응시원서 접수를 위해 해당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등 시간간격경제적 낭비가 발생했으나, 인터넷 원서접수 시스템의 구축으로 이와 같은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시험실시 등 실질적으로 자격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각 시도 조합의 경우 기존에는 각각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나, 최신 IT 기술을 바탕으로 전국에 걸쳐 표준화된 온라인 검정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관련 업무처리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게 됐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택시연합회는 택시운전 자격시험 제도의 공정한 운영과 대외 신뢰도 확보 등 자격시험 주관 기관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택시연합회는 이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지난 4월 시스템 구축사업자를 선정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업무에 착수해 약 6개월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본 사업을 추진해 왔다.

박복규 택시연합회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택시운전자격시험이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 체계를 갖추게 됐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택시업계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5만여명의 택시운전 자격 취득자를 배출해 왔으며 누적 취득자수는 2010년 10월 현재 전국에 걸쳐 115만 2926명에 이르고 있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택시운전 자격시험도 온라인시대** [? 파라기 ?](#)
 교통신문 구독위 | 조회 57 | 메시지 0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scrap |  list

번호	제목	작성일
14918	서울화물협회, 제33대 이사장 선거 공고	2013-02-13 09:07
14917	동부익스프레스, '책 읽는 버스' 캠페인 실시	2013-02-13 08:50
14916	'택시 파파라치 제도' 도입	2013-02-13 08:49
14915	"승차거부가 무슨 죽을 죄냐"	2013-02-13 08:48
14914	택시협동조합 추진 '기대 반 우려 반'	2013-02-13 08:47
14913	'천장 없는 2층 버스' 오는 22일부터 운행	2013-02-13 08:46
14912	택시지원법안 처리에 속도 높여	2013-02-08 17:03
14911	코레일 '전기차 세어링' 가동	2013-02-08 17:00
14910	여성운전자 40% 넘어섰다	2013-02-06 09:05
14909	블랙박스 보험, 도덕불감증 만연	2013-02-06 09:03
14908	세종시 BRT 운행 간격 출퇴근때 20분으로 단축	2013-02-06 09:00
14907	설연휴 전날 사고 40% 급증	2013-02-06 08:59
14906	[포토뉴스] 귀경길도 걱정 마세요!!	2013-02-06 08:57
14905	울 화물복지사업 이달 개시	2013-02-06 08:57
14904	화물공제, 설 자금 조기 지급	2013-02-06 08:55
14903	고속터미널·역 주변 음식점 특별점검	2013-02-05 17:13
14902	서울메트로 신임 사장에 장정우 前 도시교통본부장 내정	2013-02-05 17:11
14901	"공공교통 서비스 한층 높여 보자!!"	2013-02-05 17:10
14900	서울 택시 최고시속 120km 제한 추진	2013-02-05 17:09
14899	보건복지부, 사설구급차 불법 시신 운송 놓고, 이중징태 적용 논란	2013-02-05 17:08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전체 ::